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온 교회가 힘써 실천해야 할

‘경건·사랑·절제’의 삶

우리 교회는 올해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란 교회 표어 아래 “경건·사랑·절제”를 생활 지침으로 정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건, 이웃에 대하여는 사랑, 자신에 대하여는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면서 온 성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갖가지 위기를 보는 우리 교회의 시각은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

의 면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경건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올바로 실천하는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난국과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제시한 생활지침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건

1) 취지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마비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며 자기 우상을 섬기는 죄가 만연하고 있다. 이를 회개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에 제시되는 경건지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지침

- ①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거짓과 부정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 완악하고 강퍽하고 차지도 덩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첫 사랑을 회복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신앙생활을 훈련한다.
- ② 예배에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임한다.
- ③ 주일저녁 예배와 수요예배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사신 우상과 헛된 신화를 좇는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자기 우상을 버린다.
- ⑤ 설날과 추석 연휴를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
- ⑥ 교회의 목회 지침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목회자를 존경한다.

■ 사랑

1) 취지

오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갖가지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없이 인간의 호통만 교토와 친교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거

칠고 매마르게 된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입법과 공의로운 통치력이 확립되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생활의 각 부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의 누룩을 섞어야 하며 그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지침부터 성실히 지키고 사랑을 확산해 가야 한다.

2) 지침

- ① 이기주의와 탐욕의 죄를 회개한다.
- ②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쓴다.
- ③ 헌혈운동과 장기 기증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④ 북한 동포 돕기와 북한 재산권 포기 운동을 전개한다.
- ⑤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앞장선다.
- ⑥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한다.

■ 절제

1) 취지

사치, 과소비 그리고 혼전 성행위는 죄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은 경건과 이웃사랑의 필수적 조건이며,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는 길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다음에 제시되는 지침을 성실히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지침

- ① 사치와 허영의 죄를 회개한다.
- ② 사치품과 외제품 사용은 배격하고 의복

은 검소하게 하며, 일용품은 절약한다.

- ③ 식사는 간소하게 하고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 ④ 소형차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⑤ 가급적 작은 집에서 살기 운동을 전개한다.
- ⑥ 혼수를 최소화하고 기독교인 신랑은 가급적 혼수를 받지 않도록 하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경조사에 화환은 삼가며, 축의금은 1만원 이내로 하고 청첩장을 남발하지 않는다.
- ⑦ 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이용을 삼간다.
- ⑧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프를 삼간다.
- ⑨ 미혼자들은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킨다.
- ⑩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⑪ 교회 예산은 검소하게 운영하고 교회의 모든 의식은 간소하게 한다.
- ⑫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다.

선교주일에 외화드리기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이다.

우리 교회는 이날 주일 I·II·III부 예배 시에 선교헌금을 드리며 격월로 선교헌금을 드리게 된다.

특히 이날 헌금은 국적과 종류에 관계없이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외화도 모아 드리기로 했다.

이사야

회개의 재촉

1장 18 - 20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19절).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만 이 세상 인간 중에 율법적인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실수 자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즐거 순종한다’는 뜻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1. 죄의 용서

“너희 죄가 주홍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18절).

주홍 같고 진홍같은 죄가 눈과 같이 되고 양털같이 된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는데 이는 동시적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양자 삼으십니다. 또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예지, 예정, 소명, 중생, 신앙과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등 매우 포괄적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이와 같은 구원의 한 부분이며 회개하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살

길도 경제회생이나 민주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2.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사1:18 - 20).



이종운 목사

이 구절은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바로 살림입니다(속8:12). 살림은 곧 여호와입니다(삿 6:24). ‘살림’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은 ‘살렘’으로 이는 ‘완전하다, 복구하다, 완성시키다, 보상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여호와를 모신 자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살림이라는 말 속에는 건강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시38:3). 물질적인 번영(신23:6)을 이룰 때 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쟁터에서의 승리(삼하11장)도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악마와는 싸워 이겨야 평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는 완전한 인격과 사랑, 우의를 이룰 때가 살림입니다(창26:19). 이웃나라와 협조를 하고 동맹을 맺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살림입니다(왕상 5:26).

신약에서 말하는 살림은 그리스도이십니다(엡4장). 화평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요 화평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안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요14:27)..

3. 하나님의 초청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18절).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명령이 아닌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러한 초청을 하시는 분은 죄를 찾기보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

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 변론해 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진홍같은 주홍같은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4:6).

회개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렐 31:1, 행 10:45).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참 회개를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민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회 교육목표인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올해는 경건과 사랑, 절제의 운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실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펴 나갈 예정이다.

▶정기 회의: 매월 첫째 주일 III부 예배 후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당회와 교회학교 교장의 교육지침을 전달하고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도있게 의논하여 부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한다.

▶교회학교 성장목표: 각 부서 배가운동에 힘쓴다.

▶교사 재교육: 교사와 학생의 수를 확인하여 교사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교사의 공석이 생길 경우 교사대학 수료자 중에서 충원하도록 한다. 2월과 10월에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교육목표를 좀더 활성화 하고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교육적 과제를 해결한다. 각 부서에서는 매월 1회 공과 연구 및 실제적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사의 사명과 역할을 확인한다.

예배위원회

▶정기 회의: 예배위원들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위원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경건한 분위기와 환경 조성에 단전을 기한다. 또한 예배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바르게 알고 모든 예배의 준비와 경건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실 및 강단 책임자, 성례부 등 예배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

전도위원회

▶정기 회의: 전도위원회 위원들은 매월 둘째 주일 III부 예배 후 2층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전도회 활동을 돌아보고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농촌전도대 파송: 8월 10일(월) - 13일(목) 3박 4일 (예정) 자매교회 중 한 곳을 택하여 농촌전도대를 파송한다.

▶전도 훈련: 전도 훈련을 연중에 실시한다. 특별히 농촌전도대 파송 전이나 비전2000운동 기간에 맞춰 실제적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지회 연례별 연합 모임: 마리아·루디아·에스터 전도회의

3·6·9·11월 월례회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갖는다.

▶자매교회 방문: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활성화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전도회가 후원하는 교회를 연 1회 이상 방문할 수 있도록 충청권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교회와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신자와 가족구원: 올해를 가족구원의 해로 삼아 우리 교회 성도 가정 중 믿지 않는 가족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 세대에 두 명의 기도중보자와 결연하여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비전 2000운동 기간에 즈음하여 대신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특별히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온 성도가 대신자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이밖에도 3월 21일(토) 육사세례식 집례, 10월 21일(수) - 22일(목)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구위원회

교구위원회에서는 교구일꾼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일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다락방 모임의 활성화로 교회 전체가 배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별히 새예배당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올해는 모임 때마다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정기 회의: 교구장과 간사는 매월 셋째 주일 III부 예배 후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교구위원회 활동을 돌아보고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교구일꾼 교육: 1월 9일(금)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 교구일꾼의 역할을 숙지한다. 4월 23일(목) 교구일꾼 1일수련회를 기도원에서 갖는다. 매주 수요일 I·II부 예배 후 남녀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교구 담당목사의 지도 하에 모여 교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락방 모임의 활성화: 매주 빠짐없이 드려질 일정한 시간에 드리고 전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락방 예배는 남자 다락방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락방 예배의 모범을 따라 모든 다락방이 동일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성경쓰기, 악기 익히기, 기도노트 작성하기, 찬양팀 조직 등과 같이 각 다락방 특성에 맞는 특별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본다. <순례자>에 자신이 속한 다락방을 소개하고 금요기도회 등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가져본다. 분기마다 연합 다락방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한다. 잃은양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다락방별로 전도전략을 수립해 본다. 다락방별 비상연락망을 짜고 각 가정의 경조사에 잘 대처한다.

▶교인관리: 교구일꾼은 교적관리의 전산화를 돕기 위해 교구별 자료를 1월 중 교회에 제출하고 교인들의 변동사항은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새가족은 등록한 그 주간에 반드시 심방한다.

▶일제심방: 전체 교구가 2월부터 5월까지 일제심방을 하도록 한다. 기도제목과 함께 드리는 심방헌금은 모두 건축헌금으로 바친다.

1998년
각 위원회에
듣는다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	노티교회	고병채(전)	홍순복
2	서천청운교회	강성동(목)	배드로 3선교회
3	안동명성교회	김광식(목)	이영기 · 아영숙
4	내도중앙교회	정장현(전)	박순옥
5	대구교회	장홍렬(목)	이옥녀
6	금성교회	김선영(목)	논현5·6, 김병호
7	신명교회	김성재(목)	이영자
8	월천교회	김승규(전)	임상현 · 서희숙
9	백마교회	김우동(전)	김태기 · 윤문자
10	명곡교회	김은혜(전)	루디아 4전도회
11	제곡제일교회	김재관(전)	반포1·2·3다락방
12	세곡장로교회	김진호(전)	루디아 1전도회
13	마장교회	김철우(목)	마리아3·6전도회
14	영암산성교회	남성환(목)	고윤화
15	영광교회	이양재(전)	하영수 · 박정순
16	최성중앙교회	박병훈(목)	임상현 · 서희숙
17	석암교회	정돈영(전)	가브리엘찬양대
18	내동교회	배규환(목)	호산나찬양대
19	월동남부교회	송기영(전)	스메탄회
20	신기교회	신정의(전)	김상철 · 최원자
21	동수교회	신형수(전)	요한 6· 에스더 3
22	만년교회	윤재성(전)	이관규 · 이선영
23	울곡교회	엄산덕(전)	오정수 · 이영희
24	시온성교회	염일선(전)	논현7·8다락방
25	용포교회	오효산(목)	윤봉준 · 김명화
26	금동교회	우병렬(목)	박철훈 · 이경희
27	신경리교회	유성상(전)	루디아 6전도회
28	화산산성교회	윤일권(전)	대치4다락방
29	관천리교회	이문규(전)	홍경호 · 우선자
30	성운교회	이성남(전)	최완
31	양평교회	이순화(전)	임광식 · 노영숙
32	구락교회	이석노(목)	창년부
33	송내교회	이용민(전)	김복녀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34	대암교회	이일준(전)	김인수 · 이영희
35	강산제일교회	이재성(전)	임경민 · 규연 · 연주
36	안평교회	권영복(전)	이강인 · 허숙
37	춘양농아인교회	이종순(전)	왕경래 · 김정희
38	산야교회	이형근(전)	노문환 · 장정화
39	시온교회	임대준(전)	윤봉준 · 김명화
40	명화반성교회	임희수(전)	모세선교회
41	내경도교회	장군(전)	오윤걸 · 선혜 · 명걸
42	마교교회	장철수(목)	김영준 · 박태희
43	동화교회	전갑희(목)	박두호 · 한성옥
44	덕계교회	정용철(전)	예배위원회
45	정림중앙교회	정해술(목)	메드로 6선교회
46	이산제일교회	조준래(목)	미포 · 은평 · 서대문
47	거림교회	최경수(전)	김중복
48	명계교회	박점용(목)	차량관리부
49	마동교회	최태환(전)	메드로 1선교회
50	굴암교회	최효임(전)	서초1 · 2다락방
51	전구교회	황영옥(전)	안인호 · 이명신
52	성북교회	이갑봉(목)	정무균 · 이영희
53	상덕교회	김한근(목)	사랑의회
54	봉암교회	김영구(전)	홍정호 · 우선자
55	안너옥교회	최재일(목)	오정수 · 이영희
56	두화교회	유사무엘(전)	한나 1전도회
57	변촌교회	이금봉(전)	안평 · 김경아
58	추도교회	오윤주(목)	사랑부 교사
59	계동교회	이동진(전)	김대호 · 남순덕
60	대곡교회	임평근(전)	김광신 · 이인선
61	우두교회	김명희(전)	분당2 · 3다락방
62	마장교회	주추신(전)	루디아 1전도회
63	잠덕교회	윤영모(전)	정동호 · 김정임
64	모도교회	조동문(전)	박정선 · 김남순
65	석성중앙교회	박병훈(목)	루디아 3전도회
66	새문교회	김억일(전)	에스터 1전도회

후원자는 계속 접수합니다(문의:전도위원회)

④ 언론기관에서는 바른 휴일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낭비적이고 과시적이며 쾌락주의적 행동을 선동하는 보도는 일체 삼가도록 한다.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최금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가톨릭방송(HLKY 837KHz)	「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감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감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1. 경건·사랑·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농어촌 자매교회와 100교회운동을 위해
3. 나라와 민족을 위해
4. 민족보육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